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제20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팡파르’

장성군, ‘행복동지’ 사업 호평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취약계층 주택 수리

서편제의 본향 보성군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편제보성소리전수관과 다향체육관, 보성군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제20회 서편제보성소리 축제를 개최한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20회째를 맞는 축제는 전통예술 경연대회를 통한 인재발굴과 판소리의 명맥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축제는 국악명인의 등용문인 전국 판소리·고수 경연대회를 비롯하여 명창공연, 퓨전국악과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 및 정통과 조화로운 젊은 판소리로 색다른 소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요행사는 서편제의 비조인 박유진 선생 추모행사, 국민대통합 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전년도 대상 수상자 공연, 전통타악 아좌 '장구 FREE!' 공연,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초청연주회, 송순섭, 김나나, 양승

오는 20일부터 3일간 아름다운 보성소리의 향연 전국 판소리·고수 대회·명창공연·퓨전국악 등



회, 정우연, 프로젝트 락(樂) 등이 출연하는 KBS 특집 축하공연 등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특히, 20일 오후 4시 다향체육관에서 열리는 국민대통합 아리랑 공연은 이리랑을 부르는 입은 다르지만 이리랑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이구동성(異口同聲)'

아리랑'을 주제로 흥겨운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전국판소리·고수경연대회의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상과 시상금 2천만원이 수여되며, 고수경연대회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됨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연대회는 판소리와 고수분야로 나뉘 명창부와 대하 및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등으로 열리며,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된다.

한편, 보성군은 서편제의 비조 박유진선생과 보성소리를 정립하신 정응민선생, 조상현, 성창순 등 많은 명창을 배출한 판소리명창의 산실로서 우리나라 국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성군이 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집을 수리해주는 '행복동지' 사업을 자체적으로 벌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충당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전라남도와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행복동지' 사업을 통해 주택 개보수 수혜를 입은 가구가 15호에 이른다며 27일 밝혔다. 장성군에 따르면 집이 헐어 사실상 거주하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황룡면의 김모씨는 장성군 지원으로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

옛날식 화장실과 부엌으로 인해 생활하기 불편했던 남편의 허모씨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부엌을 보수했다. 단월이 안 되는 데다 화장실까지 재래식이어서 불편을 겪던 동화면의 김모씨는 단월 작업과 전장 보수 수세식 화장실 설치를 지원받았다. 이들을 포함

해 지원자 모두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가구나 저소득 가구가 총 지원 액수는 1억6,181만원이다.

장성군의 '행복동지' 사업이 주목을 모으는 이유는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수선급여 등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장성군은 전남도와 연계한 '행복동지' 사업을 통해 올해 3기구를 지원했으며 내년도도 사업을 이어간다. 이와 동시에 장성군은 지역 기준에 맞지 않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주택을 개보수할 여력이 없는 이들을 지원하는 자체 '행복동지' 사업을 별도로 벌이고 있다.

이 사업이 가능한 이유는 장성군이 2014년 전국 최초로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성군은 매년 평균 1억5,000만원 인파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왔다.

장성=반정모 기자

함평군, 규제개혁 인센티브 확대한다

근무성적 가점 등 우대

함평군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불합리한 법령 발굴 및 조례 개선,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한 지역투자 유치 등 규제개혁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2월 이내 특별휴가 수여 등 소극적인 포상에 그쳤으나 이르면 내년 초부터 근무성적 가점, 성과상여금 가산점 부여, 국내외 연수 선발 우대 등 포상을 확대해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조태용 부군수는 "규제개혁 인센티브 추진으로 공무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추진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진직위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의 방향과 지방공무원의 역할 이란 주제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서왕장 규제개혁시례탐방을 초청,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규제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

구례동편소리축제 및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 성료

전통예술과 문화관광자원을 접목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국악축제 '2017 구례동편소리축제'와 '제21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올해 아홉 번째 맞이한 구례동편소리축제에서는 동편제 판소리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대중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었다.

첫째 날인 13일에는 송만갑 유성준, 박봉래, 박봉술 등 동편제 거장과 국악인을 기리는 '국악인

추모제'를 시작으로 개막식과 개막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개막 축하공연은 'KBS 국악한마당'으로 꾸며졌다. 가을밤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구례 시천 체육공원 특설야외무대에 남상일, 박애리, 김덕수 사물놀이, 이난주 명창,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 등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인들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감동의 무대를 보여줬다.

둘째 날 전국 대학생 종합경연대회'에는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들이 참가해 젊은 열기를 전했다.

대상은 전통농악의 묘미를 제대로 보여준 서울지역대학연합팀에게 돌아갔다.

14일과 15일 이틀간 펼쳐진 '제21회 송만갑 판소리·고수대회'는 24명이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김유경(여, 46세, 서울) 씨가 판소리 부문 명창부 대상(대통령상, 상금 1천5백만 원)을 받았고, 고수 부문 일반부에서는 김민서(남, 39세, 서울) 씨가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상금 3백만 원)을 받았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고흥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 통해 25명 수료생 배출



고흥군은 지난 9월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을 통해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및 가공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번 교육

은 지난 9월 5일부터 관내 군민을 대상으로 총 9회(36시간)에 걸쳐 한 국식품정보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되었다.

농산물가공 제조현장에서 필요한 위생법규, 제품표준화, 세무법률, 특허 등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지식을 교육생에게 전달하고, 농가들이 직접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교육생의 가공 창업을 통한 소득 향상에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는 평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 종합가공연구관에서는 농가들이 농산물의 기능성을 잘 살리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가공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은 잼, 음료 등 식품 제조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11월 중순에는 가공전문과 양성(심화)과정이 있을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영광군, '호국정신 함양교육' 실시

중학생 40명 대상 천안 독립기념관·대전 현충원 등 견학

영광군은 지난 13일 관내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천안 독립기념관, 대전 현충원 등 우리나라 현충시설을 견학하는 '호국정신 함양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역사를 만나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사업은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국민의 하나된 마음'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 교육을 추진하여 견문을 넓히고자 진행되었다.

견학에 참여한 학생은 "교과서로만 보고 들던 것을 독립기념관과

현충원을 직접 방문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그분들의 뜻을 이어받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애국심 고취와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적인 보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유공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앤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의 (주)에이치앤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원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